

2024. 4. 1.(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02-2133-5410

노동지원팀장

김정아

02-2133-5419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eoul.go.kr>
상단<서울소식> → 좌측<고시공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서울시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받는다

- 산재취약 퀵서비스, 건물관리 사업장 등 대상, 올해부터 음식업 추가...총 100곳
- 안전보건전문가 등 전문가 사업장 직접 방문해 맞춤 컨설팅 및 개선방안 제안
- 안전보건공단 연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 감면 혜택도
- 서울시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서 발급, 사고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도움

- 평소 넘어짐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A건물관리업체는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후 잠금장치 표시판을 비롯해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게시·부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 서울시가 50인 미만의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업주 법적 의무조항인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업'을 지원업종에 추가해 더 촘촘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퀵서비스(물품 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 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종이며 올해는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고 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18.8%, ’23.10월 기준)’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을 추가했다.
-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더 강화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전문가 등 전문가 사업장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 및 개선방안 제안>

-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총 25명)’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1차 컨설팅은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차 컨설팅은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또한 서울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하여 2차 컨설팅 완료 후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정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음식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 또는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다.
-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2024년 위험성 평가 홍보물.
 2. 2023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례. 끝.

두해·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 SOUL

위험성평가의 어려움! 안전보건지킴이가 도와드립니다



• **대 상** 서울 소재 50인 미만 퀵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음식업 100개소

• **신청방법** (방법1)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방법2) 구글폼 스캔 접속 > 구글폼 신청 제출 ※ 선착순 모집

• **신청서류** 신청서

• **제 출 처** jieun111@seoul.go.kr

• **문 의 처** 02-2133-5590



• **컨설팅 절차**



접수신청



방문 컨설팅
총 2회



위험성평가



선택 희망사

우수사업장
인정심사
(안전보건공단)

서울시가 위촉한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 (총 2회)

#넘어짐 등의 아차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 건물관리 A업체는 안전보건지킴이 컨설팅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리정돈 및 안전장비 지급·착용, LOTO(잠금장치 표시판) 이행 철저, 위험장소 내 안전보건표지 부착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였다.



소화기 표시 미부착



소화기 표시 부착



주의 경고 미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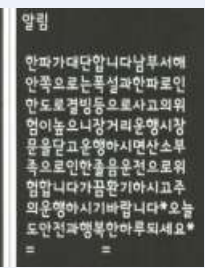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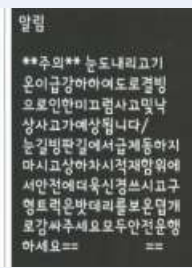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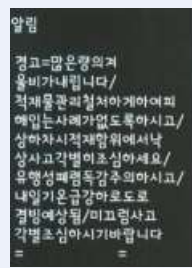


주의 경고 부착

커서비스업(플랫폼 노동) 특성상 대부분 비대면 작업으로 직접적인 사고 예방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TBM) 운영 등이 어려웠다. 안전보건지킴이 컨설팅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구 소재 B업체는 게시판으로 통해 안전운행 독려를 전파 실시하였고, 강서구 소재 C업체는 메시지 알람을 통해 작업 내용과 안전주의사항 등을 함께 전달하여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하였다.



안전게시판 전파



안전알림 안내